

# 강진 ‘효심이 든든밥상’ 어르신 얼굴에 ‘웃음꽃’

### 군, 서문마을에 ‘거점형 경로당’...리모델링·시설 개선 안정적 급식 서비스 제공...고립 예방·돌봄 확대 기대

강진군은 최근 강진읍 서문마을에서 거점형 경로당 개소식을 열고 ‘효심이 든든밥상’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이번 서문마을 거점형 경로당은 지난해 말 군동면 영포마을, 올해 1월 강진읍 평동마을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열었다.

거점형 경로당은 기존 11개 읍·면 15개소에서 운영 중인 경로식당 이용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인 인구 증가로 경로식당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설 간 거리로 접근성 측면의 불편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어르신 인구가 많은 마을을 중심으로 거점형 경로당을 확대해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서문마을 거점형 경로당은 혼자 지내는 어르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됐다.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함께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며,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서문마을은 읍 소재지 내에서도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협소한 주방 공간과 부족한 식탁으로 식사 준비와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



강진군은 최근 강진읍 서문마을에서 거점형 경로당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사진제공=강진군청

다. 이번 사업으로 넓고 쾌적한 환경이 마련됐다. 접이식 식탁 지원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식사할 수 있게 됐다. 또 경로식당 수준의 안정적인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군은 이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 식당 리모델링, 도시가스 설치, 주방 설비 및 각종 집기를 지원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을 돌보는 따뜻한 강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고령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활용한 ‘우리동네 고기밥상’을 운영,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점형 ‘효심이 빨래방’ 3개소 운영, 어르신 목욕서비스 및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건강관리와 생활 편의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 영암, 관광객 여행비 75%까지 돌려준다

### 양인문화축제 연계...방문객 증가·지역 소비 활성화 효과

영암군이 기존 ‘영암 여행 원플러스원’ 사업에 더해 여행비를 최대 75%까지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을 4월 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타지역 관광객이 영암에서 사용한 숙박·식음·체험 비용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체류형 관광 지원 정책이다.

특히 영암군은 기존 ‘원플러스원’ 사업과 통합 운영해 신청과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객이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급 혜택은 방문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 관광객은 1회 방문 시 50%, 2회 방문 시 최대 75%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19세부터 34세 청년은 1회 방문

부터 70%의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이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50% 수준 지원에 그치는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지방문을 유도하는 체류형 관광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을 제외한 외지 관광객이며, 인접 지역 주민은 기존 ‘영암 여행 원플러스원’ 사업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열리는 ‘영암양인문화축제’와 연계해 운영되며, 축

제 기간 방문객 증가와 지역 소비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영암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홍연주 영암군 관광과장은 “관광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영암 여행 원플러스원’ 사업과 통합해 접근성을 높였다”며 “사진 신청과 인증 사진 촬영 등 핵심 절차만 숙지하면 누구나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영암에서 실속 있는 휴가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 완도,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 출시

### 미역·톳·유자·황칠 등 지역 우수 자원 활용·홍보

완도군은 4월 완도의 해양 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한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을 출시한다.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 상용화 사업은 해양치유센터에서 사용 중인 20여종의 제품을 바탕으로 이용자 대상 선호도 조사, 홈페이지·전화 문의 등을 종합 분석해 선호도가 높은 8개 제품을 선정했다.



완도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

사진제공=완도군청

특히 제품 구성과 디자인 개선까지 소비 수요를 적극 반영했으며, 제품 개발 당시 취득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을 활용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8개 제품은 지역 특화 자원인 미역, 톳, 유자, 황칠 등을 활용한 유자 마스크팩, 유자 클렌저, 다시마 머드팩, 머드 황칠 비누, 유자 샴푸·비디 워시, 로션, 토너 등이다.

이들 제품은 단품(4종), 클렌징 세트(1종), 여행용 세트(1종) 등 6종으로 구성됐으며,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단품은 유자 마스크팩·클렌저, 미역 머드팩, 황칠 머드 비누로 구성됐다.

클렌징 세트는 유자 샴푸·비디 워시·클렌저, 톳 토너·로션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클렌징 라인으로 구성됐다. 여행용 세트는 클렌징 세트와 같은 구성의 소용량 제품이다.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 출시는 지역 특산물 홍보는 물론 새로운 소득 창출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연계하여 제품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완도=김혜국 기자 kkr1831@gwangnam.co.kr

## 진도, 봄철 대형 산불 비상 대응

### 산불 감시 드론 현장 투입

진도군은 봄철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 초동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관리 ‘경계’ 단계에 맞춰 빈틈없는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하는데, 공무원을 비롯해 산불재난대응

단, 의용소방대, 마을 이장 등 민관이 하나 돼 산불 감시에 나선다.

성묘객의 이동이 많은 묘지 주변과 입산 통제 구역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해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군은 주간 감시 체계와 더불어 야간 순찰조를 확대 편성해 감시 공백을 해소하고, 상황실과 현장에 있는 24시간 비상 연

락망을 가동해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쳤다.

또 감시가 취약한 산길 깊숙한 곳 등의 불법 소각을 감시하기 위해 산불 감시 드론을 현장에 투입하고, 영농 부산물과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등 위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도와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산불 발생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며 “나무터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진도군은 봄철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 초동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초대석**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균형 이루는 데 힘 쏟겠다”

**초대석**



**김원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위원장  
“문화중심도시 광주, 시민 지지가 완성의 힘”

**이달의 CEO**



**정태영** 스몰액션 대표  
페어암, 가방으로 재탄생 해양쓰레기 자원 순환

**화제의 인물**



**오금석** (주)야생엔터비 대표  
꿀벌로 일군 50년, 한국 양봉의 길을 바꾸다

2026.04 vol. 155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 전라도인

구독문의: (062)370-7080    광고문의: (062)370-7070

**전남의 보물섬**



여수 손죽도  
진달래 향에 봄소식 싣고  
화전에 봄의 풍류 담았다

**포커스**



여수산단 생산 차질 현실화...  
중등 리스크 직격탄

**커버스토리**

윤호열 전 전남바이오진흥원장  
전남 바이오 ‘제2창업’  
국가 전략산업 도약 발판 마련



**초대석**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균형 이루는 데 힘 쏟겠다”

**초대석**



**김원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위원장  
“문화중심도시 광주, 시민 지지가 완성의 힘”

**이달의 CEO**



**정태영** 스몰액션 대표  
페어암, 가방으로 재탄생 해양쓰레기 자원 순환

**화제의 인물**



**오금석** (주)야생엔터비 대표  
꿀벌로 일군 50년, 한국 양봉의 길을 바꾸다

2026.04 vol. 155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 전라도인

구독문의: (062)370-7080    광고문의: (062)370-7070

**전남의 보물섬**



여수 손죽도  
진달래 향에 봄소식 싣고  
화전에 봄의 풍류 담았다

**포커스**



여수산단 생산 차질 현실화...  
중등 리스크 직격탄

**커버스토리**

윤호열 전 전남바이오진흥원장  
전남 바이오 ‘제2창업’  
국가 전략산업 도약 발판 마련

